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에서 발췌

김홍도의 씨름도

앞치락 뒤치락 들끈 왼발과
떠오르는 오른발, 판났다!


중학교
미술수업자료
행복한 미술수업을
위하여



단원(檀園) 김홍도 (1745~1806년 이후)
 조선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7 x 2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527호

씨름판이 벌어졌다.
 여기저기 철 이른부채를 든 사람들을 보니,
 막 힘든 모내기가 끝난 단오절이다 보다.

씨름꾼은 살바를 상대편 허벅지에 휘감아
 팔뚝에만 걸었다.

이건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지방에서만 하던 바씨름이다.
 흥미진진한 씨름판,

구경꾼은 한복판 씨름꾼을 에워싸고
 빙 둘러 앉았다.

누가 이길까? 앞쪽 장사의 들배지기가
 제대로 먹혔으니 앞사람이 승자다.

그리고 들뜬 왼발과
 떠오르는 오른발을 보라. 절망적이다.

게다가 오른손까지 점점 빠져나가
 바나나처럼 길어보이니
 이제 곧 자빠질 게 틀림없다.





단원(檀園) 김홍도 (1745~1806년 이후)
조선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7 x 2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527호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기술은 왼편으로 걸었지만 안 넘어가려고
반대편으로 용을 쓰니
상대는 순간 그쪽으로 낙아챌다.

이제 오른쪽 아래 두 구경꾼이 깜짝 놀라며
입을 딱 벌렸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림속 왼손, 오른손까지
뒤바뀌었구나.

순간 상체를 위로 밀리고 오른팔은 뒷땅을 짚었다.
판났다!

이들 구경꾼 위쪽에
짚신과 발박신이 보인다.
짚신 주인은 아마 소매가 짧은 앞사람이고,
비싼 발말신 주인은
입성 좋은 뒷사람일 게다.

오른쪽 위 중년 사내는 승자편인지
입을 헤벌리고 좋아라 몸이 앞으로 쏠리며
두손을 땅에 댄다.
그 옆의 잘생긴 상투잡이는 떨벌거지를 앞에
놓았으니 마부인가 보다.
저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씨름판은 시작한지 퍽 오래 되었다.



단원(檀園) 김홍도 (1745~1806년 이후)
조선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7 x 22.7cm,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527호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

왼쪽 위쪽 부채로 얼굴을 가린
어리숙한 양반은 아닐 성 싶다.
삐뚜름하고 발이 저려 비죽이 내민 품이
좀 미욱스러워 보인다.

그 뒤 의관이 단정한 노인은
너무 연만(年晩)하시니 물론 아니고,
웁거니 그 앞의 두 장정이 심상치 않다.
갓을 벗어 나란히 겹쳐 놓고
발막신도 벌써 벗어 놓았다.
눈매가 날카롭고 등줄기가 돋으며 내심
긴장한 듯 무릎을 세워 두 손을 깎지낀 채
선수들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선수 두 사람의 초조함과는 무관하게
옛장수는 혼자서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먼산만 바라본다.
옛판에 놓인 엽전 세냥이 흐뭇해선가 . . .



공책만한 종이 위에 모두
스물 두 사람을 그렸는데
인물은 아래보다 위에 더 많다.

구도가 가분수니까 씨름판의 열기는
저절로 우러난다.

그런데 구경꾼은 모두
위에서 내려다본 시각으로 그렸고,
씨름꾼만 아래서 치켜다본 모습이다.

그렇다. 위에서 보고 그렸으면 난장이처럼
왜소해졌을 것이다.





화가는 구경꾼들이 앉아서 바라본 시각을 그대로 옮겨 왔다.
그래서 그림보는 이가 씨름판에 끼어든 듯 현장감이 살아 있다.
한 번 더 그림을 휘둘러보니,
아니 여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 춘향이처럼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를 타러 갔나보다.

작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찬찬히 바라보면 옛적에 내외(內外)하던 풍습까지 읽힌다.

